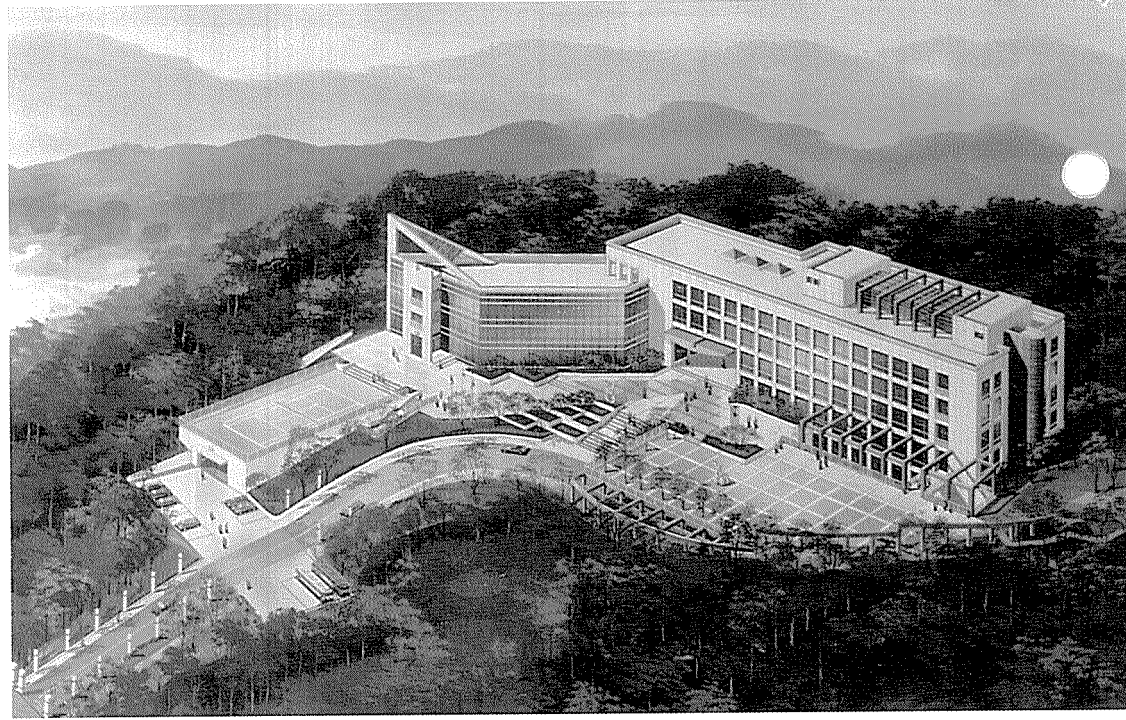


# Competition

현상설계경기



조감도

## 해운산업연구원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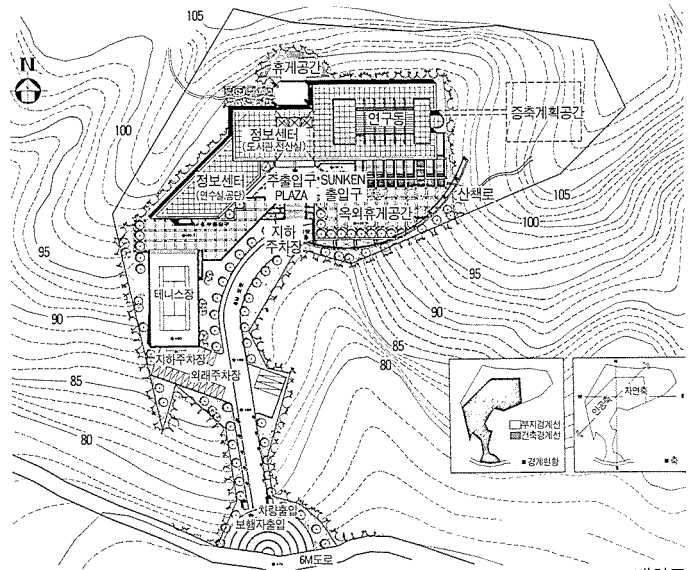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운산업연구원은 효율적인 연구활동과 연수교육훈련장으로써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 지난 3월 11일 한기건축(황인호+조영식)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대지 지형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구기능과 정보센터의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상징성을 표현하는데 주력한 당선작 외에 우수작으로 아키 필건축(서원필)안이 선정됐으며, 도울건축(심우근)안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현상설계에서 당선작에게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권이 주어졌으며, 우수작에 상금 1천만원, 가작에 상금 5백만원이 각각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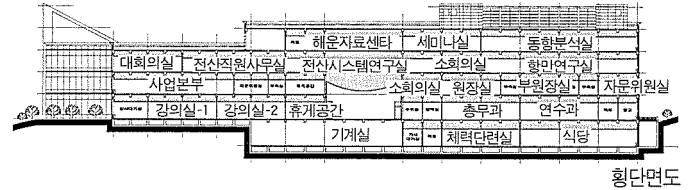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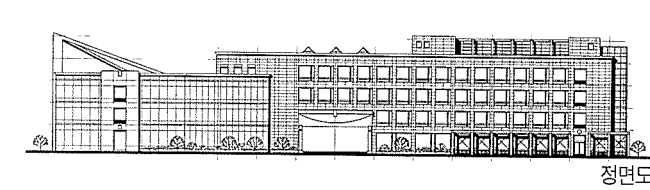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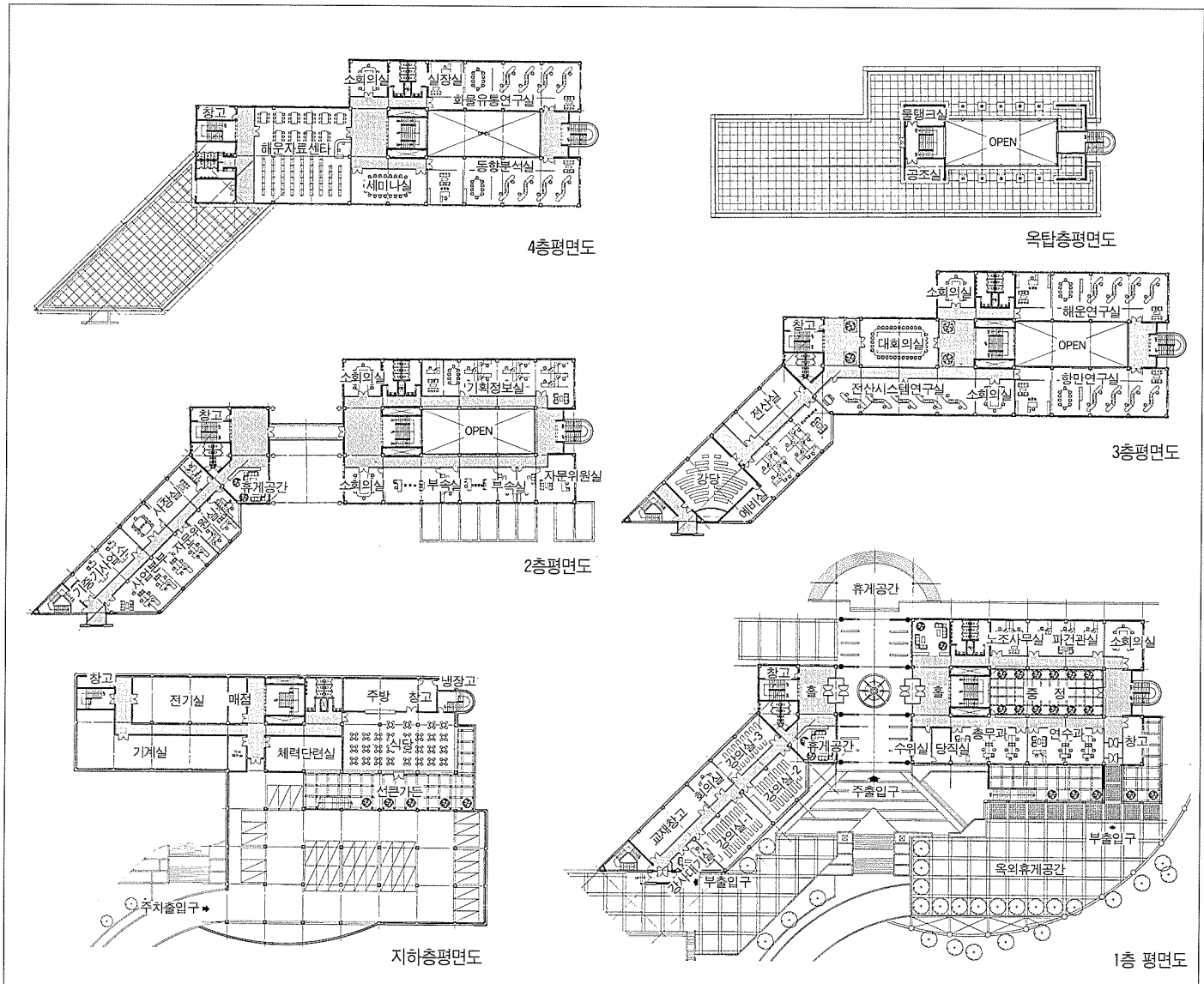
### 당선작

#### 한기건축(황인호+조영식)

위치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산88-1  
 대지면적 / 9,900㎡  
 건축면적 / 1,868㎡  
 연면적 / 7,596㎡  
 건폐율 / 18.87%  
 용적률 / 64.92%  
 규모 / 연구동 - 지하1층, 지상4층  
 정보센터 -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복합패널,  
 18mm파스텔 북층유리  
 설계담당 / 문호, 이종기



배치도



**계획의 배경**

이 프로젝트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할 연구원으로서 해운·항만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반하는 연구기능과 해운 항만분야의 전문인력을 위한 연구기능의 복합기능을 갖고있는 건물로서 연구원으로서의 장소성과 지적생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성, 쾌적성을 꾀하는 한편,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해운정보의 체계적분석 및 수집을 위한 해운정보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획대지는 신갈인터체인지에서 북쪽으로 약 3.5km떨어진 경부고속도로의 서측부지에 위치한 남동향의 비정형 대지로서 완만한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쪽의 트인조망과 자연환경의 여유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을 등고선 방향과 일치시키며 후면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주어진 대지안에서 모든 시설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지경계선을 따라가며 매우 밀도있게 설계해야 했기때문에 레벨조정과 동선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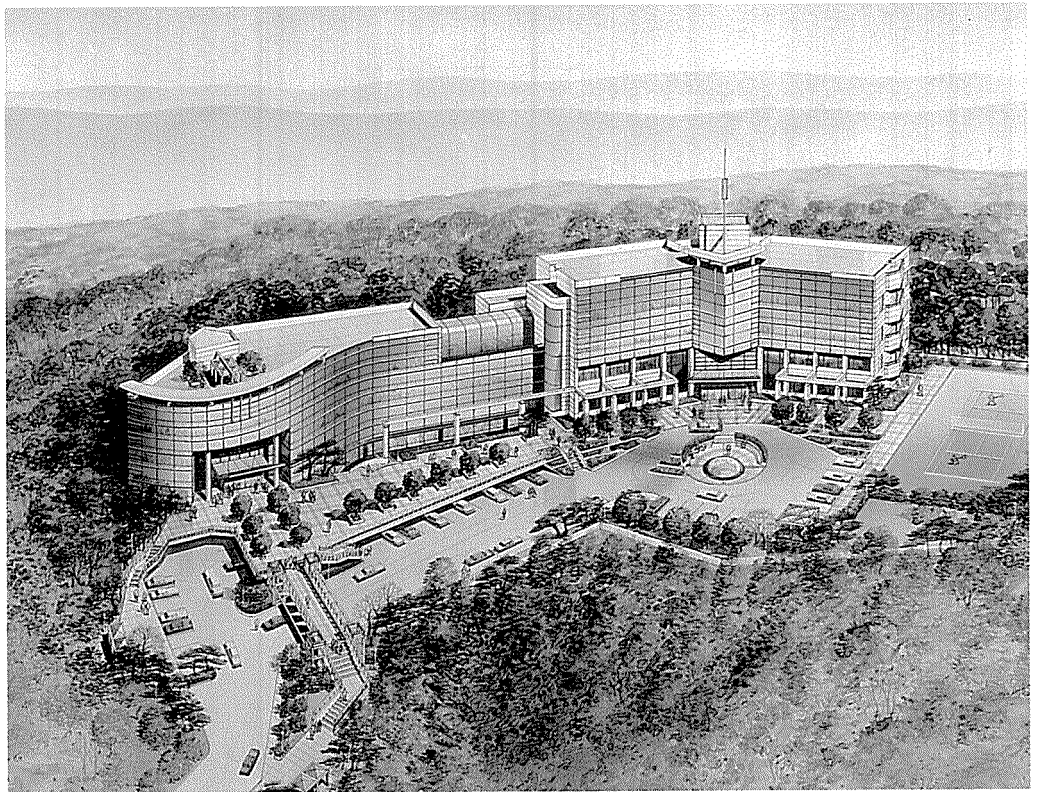
-건물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대지축과 지형에 맞춰 남향주의 매스형태를 취하고 장래 증축을 고려한 수평적 연속배치로 계획하였다. 또한, 주축(남북축)을 중심으로 연구동과 정보센터로 계획하였으며, 두 시설간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연계성을 계획시에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동선계획에서는 연구원 동선과 차량동선을 가능한 분리시켰으며, 연구원 차량동선은 경사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건물 전

면 테크하부에 처리하여 동선의 혼란을 극소화하였으며, 테크상부는 연구생들의 녹지휴게 공간으로 구성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였다.  
 -두 시설간의 주출입구는 피로티를 도입하여 건물의 활력을 부여했으며, 접근욕구에 적합한 상징성을 부각시켜 건물인지도 및 어프로치를 꾀하였다.  
 -또한 주 건물인 연구동에 중정을 도입하여 연구실의 채광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도모할 뿐아니라 유기적인 외부공간을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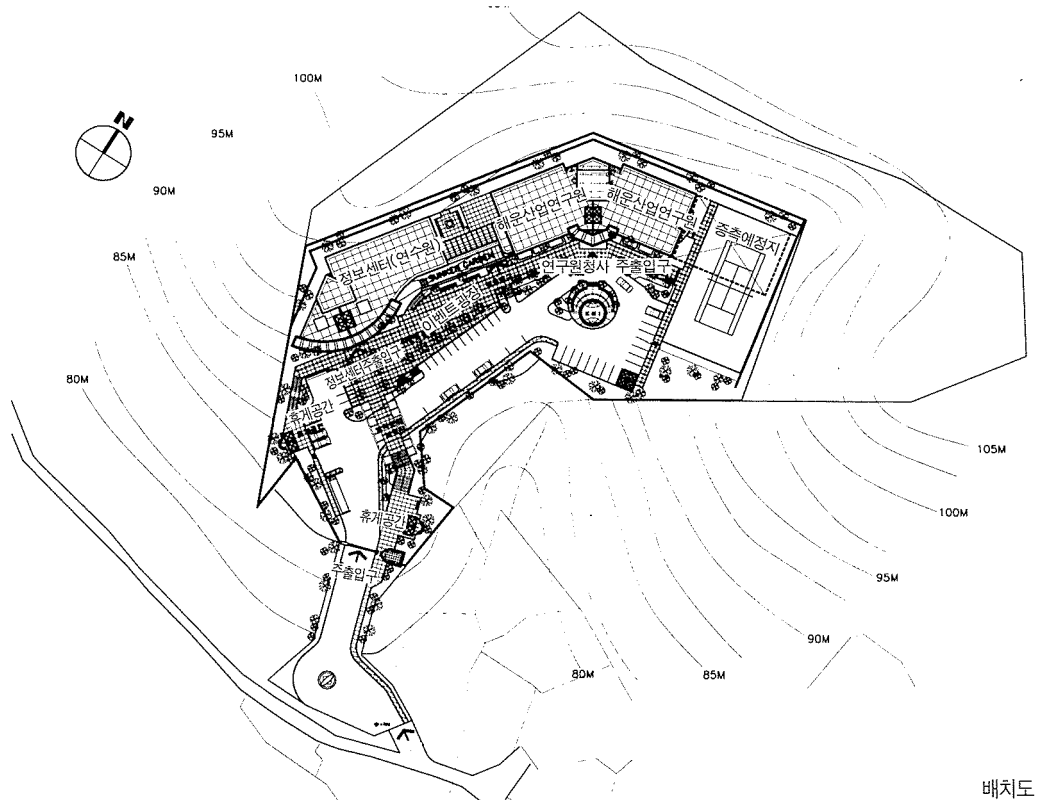
## 우수작

아키 필 건축  
(서원필+김종호+최홍철)

위치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산88-1(임야)  
 대지면적 / 9,900㎡(2,995평)  
 건축면적 / 1,913.53㎡(578.8평)  
 연면적 / 6,840.92㎡(2,069.4평)  
 건폐율 / 19.3%  
 용적률 / 59.1%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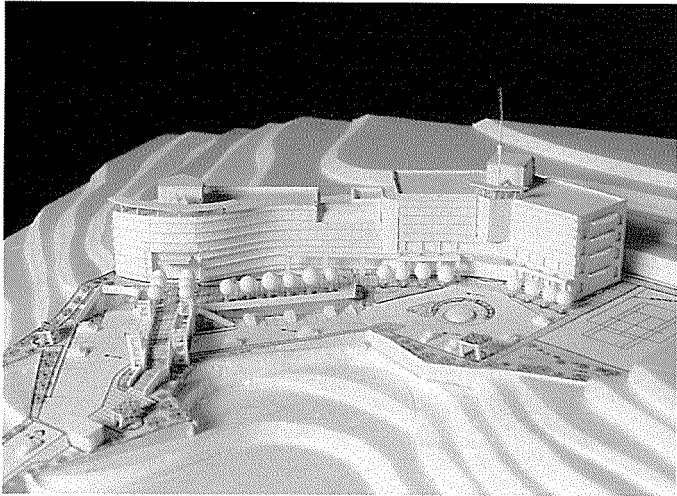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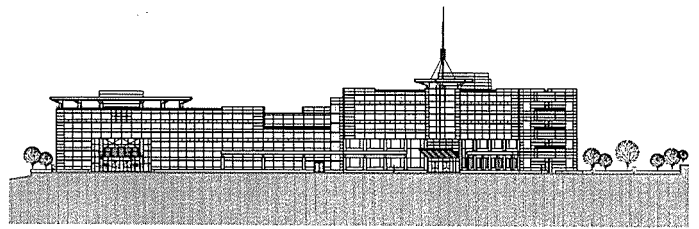
해운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현재는 상급기관인 해운항만청 청사의 몇개 층을 빌려쓰고 있는데, 이번 현상설계를 통하여 독립된 연구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더부살이에서 독립을 하게되면 그 설레이미 이만 저만이 아니고, 또 헹길 일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발주처의 심경을 더듬으며 설계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녹지지역에서 떼어낸 계획 대지는 그 모양에서부터 동서남북과 대지 축, 진입축, 가시선(可視線) 등이 엇갈리며, 설계자를 괴롭게 하였다. 대지에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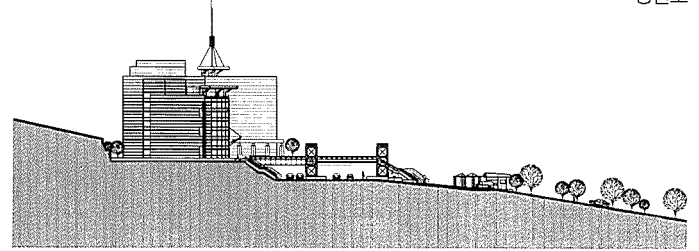
인 경부고속도로는 주위의 능선 때문에 바라보긴 쉬워도, 반대로 우리가 앉힐 건물을 그 쪽으로 내 보이기에 비좁은 공간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지의 경사가 별판을 바라보고 있고, 또 향이 남동(南東)이라 기후에 적응하기에는 별 걱정이 없어 보였다. 등고선을 따라서 길게 누운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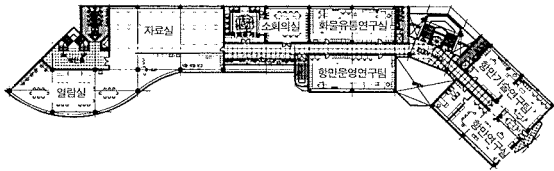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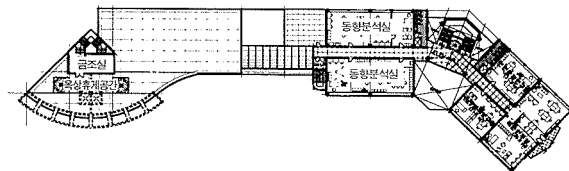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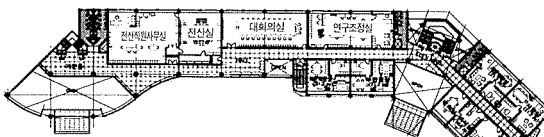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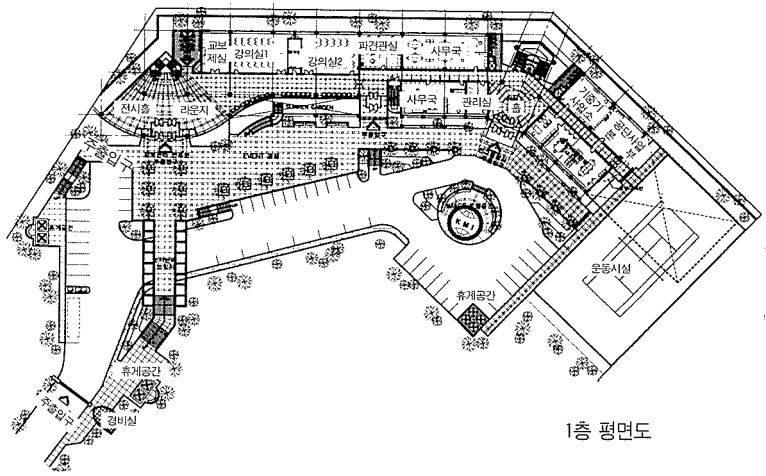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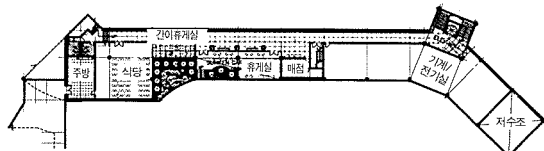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을 생각하게 된 것도 부정형(不定形)의 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써 보자는 의도였고, 그 의도를 좇아서 건물의 주 출입구 및 진입 방향, 주차장의 배열, 외부공간의 순서 그리고, 내부 공간 연계관계가 큰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외부형태에 도입된 부드러운 곡면은 내부 동선의 흐름까지도 적잖

이 영향을 주었고,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모였다가 풀리고 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주어진 프로그램에 고유기능의 연구공간과 교육기능의 정보센터, 그리고 두 기능을 보좌하는 관리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재결합하는 일도 건물의 배치만큼이나 여러 갈래로 흩어져 구심

점을 잃기 쉬웠다.

긴 동선 상에서 재미난 일을 겪으려 하다보니 계획의 구성이 미약해진 감도 없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연구공간의 독특함을 짚어 보았다는 것이 우리의 위안이다.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늘 염두에 둔 것은 계획된 건물이 해운산업연구원답게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시험해 보고, 또 그 중 선택된 것이 프로젝트에 살아있으나, 그것의 진위는 우리의 의도나 해석을 나열하기보다는 연구원 출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다.